

## 『醫學入門』을 통해 본 조선 침구학의 특성

오준호<sup>1</sup>, 김남일<sup>2</sup>, 차웅석<sup>2</sup>

<sup>1</sup>통일부 하나원

<sup>2</sup>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 The Originality of Acupuncture in Chosun Dynasty found in *Introduction to Medicine*

Junho Oh<sup>1</sup>, Namil Kim<sup>2</sup>, Wungseok Cha<sup>2</sup>

<sup>1</sup>Ministry of Unification, Settlement Support Center for North Korean Refugees(Hanawon)

<sup>2</sup>Departmen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Objectives: Examine the difference of Chosun acupuncture from the acupuncture in Myung, Chung Dynasty

Method: This paper examines the acupuncture mentioned in the classic of *Introduction to Medicine*. For this, the special traits of *Introduction to Medicine* acupuncture was analyzed. Secondly, the research on the contents of *Introduction to Medicine* acupuncture quoted in the classic of *Essential Rhymes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Treasured Mirror of Eastern Medicine*, and *Experimental Prescriptions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was carried out.

Result: *Introduction to Medicine* put much importance on "method of acupuncture following the five circuits and six qi" (子午流注針法) and *Song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through comparing "eight methods of acupuncture following the five circuits and six qi" (子午八法) and "scattered needling method". The doctors in Chosun Dynasty, however, did not adopt this theory with their own standards on acupuncture. On the contrary, they put more importance on the inquiry of historical evidence on river point and extraordinary points.

Conclusion: The acupuncture studies of Chosun Dynasty had already formed its own standards on the medical theories, and its direction to which it was headed was different from that of the Myung, and Chung Dynasty in China.

**Keywords :** *Introduction to Medicine*, Chosun-Korea acupuncture

### I. 서론

조선의 침구학 역사를 살펴 보면 중국과는 매우 다른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명청대에는

전대의 의학논술을 정리한 침구전문서가 활발하게 편찬되었는데, 徐鳳의 『鍼灸大全』, 高武의 『針灸聚英』, 楊繼洲의 『針灸大成』 등이 그것이다.<sup>1)</sup> 그러나 조선에서는 이들 서적의 영향이 비교적 적었으며 오히려 『鄉藥集成方』, 『東醫寶鑑』 등 종합의서 안에 다량의 침구법을 구비하는 방법을 선호하였다.

또 명청대에는 침구학 지식이 鍼灸歌賦를 중심으로 전승되는 경향이 뚜렷하였고, 이 때문에 침구가부 역시 매우 발

■ 접수 2009년 2월 20일 수정 2009년 3월 27일 채택 2009년 4월 13일

■ 교신저자 차웅석,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Tel 02-964-3190 Fax 02-961-0671 E-mail chawung@khu.ac.kr

1) 肖少卿 외, 『中國鍼灸學史』, 寧夏人民出版社, 1997:351-391

전하였다.<sup>2)</sup> 하지만 조선 의서에서는 침구가부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조선과 명청대 의가들의 침구학에 대한 견해 차이를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주는 예로 『醫學入門』을 들 수 있다. 물론 『醫學入門』은 침구전문서는 아니다. 하지만 침구학에 대한 내용을 폭넓게 담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명청대 침구학의 주류에 속해 있다.

여기에서는 『醫學入門』을 중심으로 조선 의가들이 명청대 침구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살펴보고 조선 침구학이 명청과는 다른 독자적인 전통을 만들어 갔음을 조망해 보고자 한다.

## II. 본론

『醫學入門』은 明代 南豐人 李梴이 편찬한 종합류 의서로서 萬曆 4~8년(1576~1580) 사이에 간행되었다. 이 책은 중국, 한국, 일본 등지에서 수십차례 간행되었으며 그 판본도 약 20여종에 이른다.<sup>3)</sup>

『醫學入門』은 총 7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sup>4)</sup> 각 권은 上中下로 나뉘어져 있어 총 분량은 19책이다. 3권까지는 기초 이론에 관한 ‘內集’이며 4권 이하는 임상과 관련된 ‘外集’으로 이루어져 있다.

『醫學入門』은 침구학전문서적이 아니고, 저자인 이천 역시 침구학에 정통한 의가였다는 평가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조선 침구학의 독자성 검토를 위해 『醫學入門』을 선택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醫學入門』은 침구학적 가치가 높은 서적이다. 명청대 침구학을 대표하는 서적을 꼽으라면 아마도 양계주의 『침구대성』 정도일 것이다. 하지만 이 『침구대성』 안에 『醫學入門』에 담겨 있는 침구학 내용이 상당부분 인용되었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또 清代 周振武가 저술한 『人身通考』의 卷六 穴道部는 모두 『醫學入門』은 내용을 채록한 것이다.<sup>5)</sup> 이는 『醫學入門』 속 침구학 내용이 학술적으로 임상적으로 매우 가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이다.

둘째, 『醫學入門』은 명대 쓰여졌으며 명대 침구학의 전

통을 잘 나타내고 있는 서적이다. 『醫學入門』 안에는 명대 침구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자오유추침법의 전통이 잘 살아 있으며, 침구가부의 전통 또한 중요한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즉, 『醫學入門』이 종합의서이기는 하지만 명대 침구학의 분위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서적 가운데 하나이다.

셋째, 『醫學入門』은 조선 의가들이 애독했던 종합의서의 하나로서 다량의 침구학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선시대 의가들이 많이 보았던 중국 의서를 거칠게 꼽아 보면 『醫學正傳』, 『醫學入門』, 『萬病回春』 등을 들 수 있다. 이 서적들은 명대까지의 의학을 총 정리하고 있는 의학전서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醫學入門』만이 충분한 체계를 갖춘 침구학 내용을 싣고 있다.

요컨대, 『醫學入門』은 조선시대 의가들이 가장 꼽았던 서적 가운데 명청대 침구학의 성격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서적이다.

### 1. 『醫學入門』 침구학의 내용

『醫學入門』 속의 침구학 관련 내용은 内集의 첫 번 째 권인 卷一에 위치하고 있다. 卷一上에 「經絡」, 卷一下에 「鍼灸」 두 편이 그것다. 여기에는 대량의 침구문헌과 함께 상세한 주석을 담고 있다. 두 편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Table 1).

〈Table 1〉 『醫學入門』 침구학 관련 목차

「經絡」
經穴起止 十五絡脈 奇經八脈 奇經主病
「鍼灸」
子午八法 附雜病穴法 禁針穴 造針法 烹針法 灸法 治病要穴 治病奇穴 禁灸穴 附明堂尺寸法 點穴法 調養法 附 練臍法 延壽丹 接命丹 溫臍兜肚方 溫臍種子方 針灸禁忌 服藥吉日 九宮尻神 九部人神四季人神 十二部人神 逐月血忌 逐月血忌 十二支人神所在 逐日人神所在

『醫學入門』 침구법의 내용을 목차를 근거로 「經絡」과 「鍼灸」로 나누어 살펴보자.

#### 1) 「經絡」

「經絡」은 經穴起止, 十五絡脈, 奇經八脈, 奇經主病로 구성되어 있다. 분량상으로는 經穴起止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12正經 및 任督脈 등 十四經穴歌를 영추의 유주 순서에 따라 大字로 싣고, 각 경혈가 아래에 소속된 경혈의 위치 및 주치를 小字 주석으로 설명하였다.

2) 林昭庚, 鄭良, 『針灸醫學史』, 中國中醫藥出版社, 1995:269~270  
3) 차옹석, 김남일, 『醫學入門의 편제분석』, 『경희한의대 논문집』, 1999;22(1):67~70

4) 卷一 앞에 首卷이 있고, 卷二是 두 번 반복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9권이다.

5) 黃龍祥, 『鍼灸名著集成』, 北京:華夏出版社, 1997:1226

이천은 책의 「經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위의 경락편은『明堂』의 옛 문장을 근거로 고치기를 일곱 글자로서 구절을 만든 것이며, 주석 가운데 치법은 모두『銅人針灸經』에 근거한 것이다. 침뜸의 깊이와 다소는『素問』을 따랐으며 원문에 없는 것은 억지로 주석하지 않았다(上經絡依『明堂』舊文而修以七字爲句 註中治法 悉依『銅人針灸經』其針灸 深淺多少遵『素問』原未載者不敢強註).”

또 集例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경락은 明堂仰人伏人圖歌에 근거하여『內經』의 寸數穴法主治로 주석하였는데,『銅人針灸經』및 徐氏, 莊氏와 모두 같다(經絡 脩明堂仰人伏人圖歌 而註以內經 寸數穴法主治 與 銅人針灸經 及徐氏莊氏皆同).”

이천의 설명에 따르면『醫學入門』의 「경혈편」에서 경혈가는『明堂』을, 치법은『銅人針灸經』을, 침뜸의 깊이와 횟수는『素問』을 따랐으며, 徐氏와 莊氏의 의론을 참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銅人針灸經』은『西方子明堂灸經』을 가리키며, 또 徐氏는『鍼灸大全』의 저자인 徐鳳는 가리키는 것으로 밝혀졌으며,『內經』의 내용으로 주석했다는 부분은『素問』의 王冰 주석을 참조한 것이다.<sup>6)</sup>

이 외에 十五絡脈에서는 十五絡脈의 명칭과 絡穴을, 奇經八脈과 奇經主病에서는 기경팔맥의 명칭과 유주 및 주치증을 설명하였다.

## 2) 「鍼灸」

『鍼灸』에 대해서는 집례에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뜸은 반드시 옛것을 근거로 했으며, 침은 일찍이 五家의手法을 전수받았으며 소문, 난경 및 서씨, 하씨에서 취합한 것을 적어 놓았으니 급할 때를 대비하여 사용하라(灸必依古 針學曾受五家手法 取其合於 素難 及徐氏 何氏 錄之 以備急用).”

이를 통해 飛經走氣의 手技法이 五家手法의 내용이며,『素問』의 王冰注,『難經』, 徐鳳의『鍼灸大全』, 何若愚의子午流注鍼法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醫學入門』의 鍼灸는 침구치료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은 子午八法이다. 子午八法은 다시 穴法, 開闔, 邁隨, 飛經走氣으로 구성되어 있다. 穴法은 치료혈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것으로, 크게 五俞穴과 奇經八穴로 나누어 설명하였고 雜病穴法을 부연하였다. 開闔에서는 일시에 따라 穴이 열리고 닫히는 규칙을 설명하였고, 邁隨에서는 穴을 보사하는 방법을, 飛經走氣에서는 手技法을 설명하였다.

『醫學入門』은 침구학의 정수를 子午八法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穴法, 開闔, 邁隨, 飛經走氣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통해 그의 침구학관을 보여주고 있다.

- 子午八法이라고 말한 것은 子午流注와 奇經八法이다. (言子午八法者, 子午流注兼奇經八法也.)
- 급하지 않은 병은 반드시 開闔을 살피는데, 瘰疫에 반드시 運氣를 따지는 것과 같다. 급한 병의 경우에는 開闔에 구애받지 않는데, 雜病에 天時를 버리고 人病을 따르는 것과 같다. (緩病必俟開闔, 猶瘰疫必依運氣, 急病不拘開闔, 猶雜病舍天時而從人病.)
- 散鍼은 雜病을 치료할 때 여기저기 혈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병의 마땅한 바를 보아 침 찌른다. 처음에는 流注에 구애받지 않는다. 격인 상처, 넘어지거나 맞은 손상, 거슬러 오르는 통증에는 병이 있는 곳을 따져 침을 놓는데, 經穴에 구애받지 않는다.(散針者, 治雜病而散用其穴, 因病之所宜而針之, 初不拘於流注也. 若夫折傷跌撲損逆走痛, 因其病之所在而針之, 雖穴亦不顧其得與否也.)
- 잡병혈법은 옛날 방법을 구비해 놓은 것일 뿐이니 流注를 아는 자는 사용하지 말라.(雜病穴法 ... 此備古法, 知流注者不用.)
- 靈龜八法은 오로지 奇經八穴로 설한 것이다. 그 방법은 徐氏鍼灸에 실려 있는데, 賚文眞公의 오묘한 깨우침이다. 그러나 子午를 쓰는 방법은 上古로부터 시작되어 그 이치가 쉽고 밝다. 靈龜八法의 穴 또한 肘膝 이하에 있고 또 陰으로 陰에, 陽으로 陽에 응하기는 하나 어찌 子午의 流注를 뛰어넘을 수 있겠는가!(靈龜八法專爲奇經八穴而設, 其法具載徐氏針灸, 乃賚文眞公之妙悟也. 但子午法自上古, 其理易明. 其八穴亦肘膝內穴, 又皆以陰應陰, 以陽應陽, 豈能逃子午之流注哉.)

이들 문장들을 보면, 李梴은 침구치료의 큰 틀을 다음 표

6) 黃龍祥, 上揭書, 1225-1227

와 같이 流注와 散鍼의 이분법적인 구도 속에서 파악하고 있으며 이 침법들 사이에 우열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流注로 표현한 子午八法을 침구치료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등한 치법으로 보았다. 이에 반해 雜病穴法은 ‘附’를 붙여 본문 보다 열등한 관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流注를 아는 자는 사용하지 말라.”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流注 안에서도 子午流注와 靈龜八法의 구분이 있는데, 子午流注가 靈龜八法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하였다. 결국 李梴은 『醫學入門』을 통해 子午流注 한 가지를 주제로 이야기한 것이고 나머지 靈龜八法과 散鍼은 子午流注를 보충설명하기 위해 활용하였을 뿐이다(Table 2).

〈Table 2〉 醫學入門 속 침구학의 이원론적 구조

구분	성격		
流注(子午八法)	子午流注	必候開闔	緩病 (瘟疫 등)
	靈龜八法		
散鍼	雜穴	不拘開闔	急病 (雜病 등)
	阿是穴		

침법편을 구성하고 있는 穴法, 開闔, 邁隨, 飛經走氣 가운데 開闔은 온전히 子午流注의 이론에 따라 기술되어 있다.

### 3) 子午流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李梴은 자오유주침법을 침구학의 최상의 경지라고 생각하였다. 子午流注鍼法의 시작은 金代 저술된 子午流注鍼經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子午流注鍼經』은 현존하는 자오유주에 관한 최초의 전문서적으로 1153년 금나라의 閻明廣이 지었다. 이 책은 원작에 何若愚가 편저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고증을 거쳐 염명광이 편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책은 『難經』, 『素問』과 “流注指南鍼賦” 및 “賈氏井榮六十首法” 등을 모아서 편찬하였다.<sup>7)</sup>

이 가운데 流注指南鍼賦는 南唐의 何若愚가 저술한 것이며, 賈氏井榮六十首法은 알려지지 않은 賈氏의 저술이다. 『자오유주침경』 내에는 이 賈氏에 관한 언급이 여러차례 등장하는데, 서문에 나오는 내용과 그 책에 나온 내용들을 살펴볼 때 가씨는 하야우보다 앞선 시기에 활동한 것 같다. 따라서 賈氏가 문헌상 최초의 子午流注針法의 시조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보면 자오유주침법의 형성은 대략 1056~1153 혹은 그 이전이 될 것이다.<sup>8)</sup>

7) 이재동, 김남일. 『중국 침뜸의학의 역사』. 집문당. 1997:244~249

이후 자오유주침법은 전승을 계속해 왔는데, 徐鳳의 鍼灸大全의 내용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醫學入門』의 子午流注 開闔 역시 『鍼灸大全』을 기본으로 하였지만 좀 더 발전된 형태를 띠고 있다. 徐鳳은 『침구대전』逐日按時定穴決에서 한 시에 한 개의 혈이 열린다고 보았지만, 이천은 天干의 음양관계와 상생관계를 이용하여 한 시에 여섯 혈이 열린다고 보았다. 예컨대, 甲戌시에 徐鳳의 방법에 따르면 膽經의 井穴인 足竅陰만 개혈하게 되지만, 脾經(甲己相合)의 井穴인 隱白이 함께 열리게 된다. 또 五行의 子에 해당하는 火로서 小腸經(丙火)의 井穴인 少澤과 心經(丁火)의 井穴인 少衝이 열리고, 五行의 母에 해당하는 水로서 膀胱經(壬水)의 井穴인 至陰과 腎經(癸水)의 井穴인 淵泉이 함께 열린다고 보았다.<sup>9)</sup>

이는 틀에 박힌 자오유주침법에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도록 뜻을 넓힌 것이다.

### 4) 鍼灸歌賦로서의 雜病穴法

雜病穴法은 침구학에서 유행한 침구가부의 형태를 띠고 있다. 물론 『醫學入門』 전체가 詩句의 형식으로 꾸며져 있지만, 침구학에서 歌賦의 형태는 의미하는 바가 남다르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침구가부는 孫思邈의 『千金要方』과 『千金翼方』에 실려 있는 孫思邈先生鍼十三鬼穴歌와 千金十一歌이다. 고증에 따르면 孫思邈先生鍼十三鬼穴歌는 唐 이전 저작으로 孫思邈이 이를 인용한 것이며, 그 저작시기는 魏晉南北朝 시대로 추정된다. 따라서 현존하는 최초의 침구가부의 역사는 魏晉南北朝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宋代 저술된 瓊瑤發明神書(혹은 瓊瑤鍼灸神書)에는 經絡, 穴位, 針刺手法, 運氣流注, 治療 등 각 방면의 내용을 가부의 형식을 빌려 설명하고 있는데 이 역시 침구가부의 원류 격에 해당한다.<sup>10)</sup>

금원시대에는 다양한 침구유파가 형성되면서 침구가부 또한 매우 다양하게 증가하였다. 이 시기의 유명한 침구가부로는 重注標幽賦, 寶太師標幽賦, 六十六穴流注秘結, 流注指微賦, 席弘賦, 流注通玄指要賦, 玉龍歌 등이 있다.

明清代에는 金元시대 침구유파가 만들어낸 다양한 침구가부를 계승하고 또 새로운 침구가부를 만들어 냄으로써 침

8) 王東紅, 郝保華, 「子午流注形成年代探討」, 『鍼刺研究』 1998; 3:240

9) 肖少卿 외, 『中國鍼灸學史』, 寧夏人民出版社. 1997:384~5

10) 침구가부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李嘉, 徐恒澤의 논문 참조. 李嘉, 徐恒澤, 「金元明清針灸歌賦述要」, 『南京中醫藥大學學報』, 1997;13(6):359~360

구가부의 극성기를 형성하게 된다. 明代 徐鳳의 『鍼灸大全』, 高武의 『針灸聚英』, 楊繼洲의 『針灸大成』 및 清代 『醫宗金鑑』은 이들 침구가부를 정리 계승한 중요한 서적들이다.

이처럼 唐宋 시대에 형성되기 시작한 침구가부는 金元시대에 이르러 급속히 발전하게 되고, 明清시대에 이르러서는 매우 많은 수의 침구가부가 유행하게 되었다.

침구가부는 침구의학 교육에 필요하고 침구학파의 사승 관계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금원시대에서 명 청시대로 이어진 침구가부의 발전은 이 시기가 침구교육이 흥성하고 침구인재가 활발하게 배출되던 시대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천은 『醫學入門』에서 散鍼이 열등하다고 평가하였지만, 『醫學入門』에 등장하는 雜病穴法은 학술적으로나 임상적으로 매우 완성도 높은 침구가부로 평가받고 있다. 이전 의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 적지 않게 등장하고 또 비슷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다른 전본에서 채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針灸大成』을 비롯한 후대 의서에 雜病穴法이 자주 인용된 것도 이 때문이다.<sup>11)</sup>

## 2. 조선 침구학과 『醫學入門』

『醫學入門』은 조선의 의가들이 가장 즐겨보았던 서적 가운데 하나이다. 단순히 『東醫寶鑑』에 本草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인용된 서적이라는 점만 보더라도 이를 쉽게 알 수 있다.<sup>12)</sup>

그렇다면 조선의 의가들은 『醫學入門』의 침구학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조선의 의가들은 『醫學入門』의 침구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것은 『醫學入門』에서 설명된 침구학의 전통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조선의 가들이 『醫學入門』의 침구법을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鍼經要訣』

『鍼經要訣』는 『醫學入門』을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침구 전문서이다. 이 책은 西厓 柳成龍(1542-1607)이 『醫學入門』의 침구편을 새롭게 편집한 침구학 전문서로서 『醫學入門』 가운데 「經絡」 부분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저자 유성룡은 조선중기 문신학자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임진왜란을 대비하여 십만양병설을 주장하였고, 문신으

로는 드물게 왜란 당시 전쟁에 참전했으며, 당시의 정황을 담은 『懲毖錄』을 남겨 후대에 경종을 울리기도 하였다. 적은 분량의 이 책을 통해 그의 의학적인 식견이나 임상적인 경험을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전란에 신음하는 백성들 속에서 지식인으로서 고뇌했던 결과가 의사의 편찬으로 이어진 것으로 생각된다.<sup>13)</sup>

서문에는 저자가 어려서부터 병을 많이 앓아 『醫學入門』을 가까이 하였고, 노년에 이르러 「鍼灸篇」의 내용을 새로이 모아 찾아보기 쉽게 편집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장차 謳解를 달아 婦女들까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치고 있다. 여기에는 당시 저자가 河村에 거쳐하면서, 의료혜택의 부족으로 고통받았던 민초들의 삶과, 약이 부족한 상황에서 침구법이 가지는 효용을 몸으로 느끼게 되는 모습을 담고 있기도 하다.

『醫學入門』의 간행이 1580년 정도임을 감안한다면 유성룡은 당시로서는 최신 의학기술을 조선에 소개한 셈이다. 다만 실제 치료법이 없이 瘓穴에 관해서만 설명되어 있어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문의 대부분은 「穴處治法」으로 『醫學入門』 「經絡」의 經穴起止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다른 점은 經穴歌와 주석의 형태를 탈피하여 經穴歌를 싣지 않고 經穴의 위치, 주치증, 침과 뜸의 치료법 등을 표의 형태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각 수혈에는 井榮輸經合의 五俞穴이 穴名 옆에 작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고, 따로 '要'라는 표시를 두어 임상적으로 중요한 俞穴을 표현하였다.

이어 「絡穴十五」, 「奇經八脈」, 「治病奇穴」, 「煉臍法」의 내용을 기록하였다. 이 가운데 「治病奇穴」에서는 膏肓, 患門, 崔氏四花, 經門四花 騎竹馬穴 등 奇穴을 이용한 특수灸法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어 精宮, 鬼眼 등 經外奇穴의 주치증과 자구법을 함께 싣고 있다.

「煉臍法」에 대해서는 특별히 萬病回春의 관련 내용을 「附回春煉臍法」으로 정리하여 부연하였다. 이는 煉臍法에 대한 유성룡 개인의 관심을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조선 침구학에서 煉臍法이 차지하는 핵심적인 위치를 반증해 준다. 같은 시기 만들어진 『東醫寶鑑』 鍼灸法에서는 선후천의 精氣神을 중요시 여겨 腹部의 제중 및 단전, 背部의 背俞穴을 중요시하고 다용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이 책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sup>14)</sup>

11) 黃龍祥, 上揭書, p.1226

12) 『東醫寶鑑』에 인용된 서적 가운데 종합의서로는 가장 많은 횟 수인 2781회가 인용되었다. (김종권, 1995:233)

13) 안상우. 『鍼經要訣』, 고의서산책240, 민족의학신문. 2005:507

14) 오준호. 『『東醫寶鑑』 침구법의 의사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6:8-16

## 2) 『東醫寶鑑』

許浚은 『東醫寶鑑』 저술 당시 『醫學入門』의 내용을 상당 부분 인용하였다. 침구법에 있어서도 『醫學入門』의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 각 병증문에 실려 있는 鍼灸法과 「湯液編」 뒤의 「鍼灸篇」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鍼灸法에서 『醫學入門』 인용 부분을 찾아보면 모두治病奇穴에서 인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治病奇穴은 『醫學入門』 『鍼灸』 말미에 실려있는 내용으로 膏肓, 患門, 崔氏四花, 經門四花, 騎竹馬穴, 精宮, 鬼眼穴, 痞根穴, 肘尖穴, 鬼哭穴 등 10가지 奇穴들이 실려 있다(Table 3).

〈Table 3〉 동의보감 침구법 중 『醫學入門』 인용 부분 편명 대조

	동의보감 편명	『醫學入門』 편명
내경	蟲	鍼灸 治病奇穴 / 經門四花 雜病分類 虛類 諸蟲
外形	皮	鍼灸 治病奇穴 / 鬼哭穴
	後陰	鍼灸 治病奇穴 / 鬼哭穴
雜病	虛勞	鍼灸 治病奇穴 / 膏肓 鍼灸 治病奇穴 / 經門四花
	霍亂	急救諸方
	積聚	鍼灸 治病奇穴 / 痞根穴
	邪祟	鍼灸 治病奇穴 / 鬼哭穴
	救急	怪疾

『鍼灸篇』에는 보다 많은 내용들이 풍부하게 실려 있는데, 가장 많이 인용된 곳은 14경맥의 수혈의 위치를 설명한 부분이다. 동의보감의 手太陰肺經左右凡二十二穴에서 任脈流注及孔穴까지의 내용이 그것이다. 이 내용들은 銅人腧穴針灸圖經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고 『醫學入門』의 ‘經穴起止’의 내용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다.

다음으로 침구법의 子午八法, 子午流注 두 조문과 奇穴에 인용된 取膏肓腧穴法, 取患門穴法, 取四花穴法, 騎竹馬灸法에 관한 네 조문이 『醫學入門』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이 밖에 침과 뜸의 기법적인 부분에 한 두 문장 씩 인용되어 있다.

동의보감의 子午八法, 子午流注 두 조문은 아래와 같다.

### 자오팔법(子午八法)

○ 子는 陽이요 午는 陰이다. 陰陽이라고 하지 않고 子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 몸의 任督脈과 천지의 子午가 서로 소통함을 보았기 때문이다. 地理에서 指南針이 子午를 벗어나지 않는 것은 陰陽 스스로 그러한 오묘한 쓰임이다. 八法은 奇經八穴을 요점으로 하니 十二經脈이 크게 모이는

곳이다.(子者 陽也 午者 陰也 不曰陰陽而曰子午者 正以見人身任督與天地子午相爲流通 故地理南鍼不離 子午 乃陰陽自然之妙用也, 八法者 奇經八穴爲要 乃十二經之大會也(入門))

○ 公孫(衝脈), 內關(陰維脈), 臨泣(帶脈), 外關(陽維脈), 後谿(督脈), 申脈(陽蹻脈), 列缺(任脈), 照海(陰蹻脈)이다. 陽蹻脈, 陽維脈과 督脈은 陽에 속하여 어깨, 잔등, 허리, 다리를 다스리니 表에 있는 병들이다. 陰蹻脈, 陰維脈, 任脈, 衝脈, 帶脈은 陰에 속하며 가슴, 배, 옆구리를 다스리니 裏에 있는 병들이다.(公孫(衝脈) 內關(陰維) 臨泣(帶脈) 外關(陽維) 後溪(督脈) 申脈(陽蹻) 列缺(任脈) 照海(陰蹻) 其陽蹻 陽維并督脈 屬陽主肩背腰腿 在表之病. 其陰蹻 陰維 任衝 帶 屬陰主心腹脇肋 在裏之病(入門))

○ 온몸의 360개의 穴은 손과 股에 있는 66개의 穴에 통섭되고, 66개의 穴은 다시 8개의 혈에 통섭된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奇經八穴이라고 한다.(周身三百六十穴 統於手足六十六穴 六十六穴 又統於八穴 故謂之 奇經八穴(入門))

### 자오류주(子午流注)

○ 流는 가는 것이고 注는 멎는 것이니 神氣의 흐름이다. 十二經 각각은 井榮輸經合의 다섯 혈을 가진다. 손에서는 팔꿈치를 넘지 않고, 다리에서는 무릎을 넘지 않으며 陽經에 36개, 陰經에 30개로 모두 36개가 된다. 陽經에 더 많은 6개는 原穴이다.(流者 往也 注者 住也. 神氣之流行也. 十二經每經各得五穴 井 榮 輸 經 合也. 手不過肘 足不過膝 陽干三十六穴 陰干三十穴 共成六十六穴 陽干多六穴者 乃原穴也(入門))

○ 大腸의 合穴에는 또 巨虛上廉이 있고, 小腸의 合穴에는 또 巨虛下廉이 있으며, 三焦의 合穴에는 또 委陽이 있다.(大腸合又有巨虛上廉 小腸合又有巨虛下廉 三焦合又有委陽也(綱目))

『醫學入門』에서 子午流注는 침구법의 최고 단계로서 子午流注針法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의보감 子午流注 조문을 읽어보면 오수혈과 기경팔혈의 임상적 중요성 즉, 주술관절이하에 있는 五俞穴과 原穴이 중요하다는 요지를 전달하고 있을 뿐, 다른 의미를 찾아 볼 수 없다.

또 『醫學入門』에서 子午八法은 子午流注와 靈龜八法이라고 보았고, 子午流注가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으나, 동의보감의 子午八法에는 奇經八穴을 조합해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의보감 전체에서 子午流注針法에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침구편 전체 속의 위치에 있어서도, 동의보감 속 子午八法과 子午流注 두 조문은 십사경맥과 기경팔맥의 설명 뒤에 이어지고, 이 조문 뒤에는 다시 五臟六腑所屬五臟五行, 五臟主病 등의 조문이 이어진다. 이런 배치는 이 두 조문이 『醫學入門』의 子午八法이 아닌 오수혈, 원혈, 기경팔혈의 사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奇穴의 取膏肓腧穴法, 取患門穴法, 取四花穴法, 騎竹馬灸法은 『醫學入門』에서 처음 언급된 내용은 아니지만 『醫學入門』의 내용을 기준으로 삼고 다른 의서의 내용을 참고로 삼는 형식으로 인용되어 있는데, 그만큼 『醫學入門』의 내용을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침구법에 인용된 膏肓, 經門四花, 痰根穴, 鬼哭穴와 함께 생각해 본다면 『醫學入門』治病奇穴에서 精宮, 鬼眼穴, 肘尖穴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정리하면, 동의보감은 『醫學入門』의 침구법 내용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음에도 『醫學入門』의 내적 논리는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다. 침구법에서는 『醫學入門』에서 부록처럼 실려 있는治病奇穴의 내용만을 인용하였고, 침구편에서는 경혈 위치에 관한 내용과 침자수기법에 관한 단편적인 지식들이 인용되었다. 그에 반해 李梴이 강조한 奇經八穴과 散鍼에 대한 구분이나 子午流注鍼法의 주요 내용인 穴의 開闔에 관한 언급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醫學入門』 침구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子午八法과 子午流注는 단지 奇經八穴과 五俞穴, 原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양적으로 가장 많이 인용한 奇穴 부분은 침구법의 내용과 합쳐 보면 『醫學入門』治病奇穴의 대부분을 인용한 셈이지만, 이천이 중요하게 여긴 부분은 아니다. 동의보감은 李梴의 논리가 아닌 동의보감의 논리로 『醫學入門』침구법을 이해하였다.

### 3) 『鍼灸經驗方』

『鍼灸經驗方』과 『醫學入門』의 관계는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鍼灸經驗方』이 동의보감과 같이 출전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아 여기에 대한 고찰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鍼灸經驗方』에 관한 연구에서 박문현은 허임과 『鍼灸經驗方』에는 그리 큰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鍼灸經驗方』 역시 『醫學入門』의 내용을 담고 있다. 『鍼灸經驗方』에 인용된 『醫學入門』의 몇몇 내용들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동의보감과 같이 奇穴에 관한 내용이다. 『醫學入門』에 실려 있는 奇穴 가운데 『鍼灸經驗方』에 실려 있는 것은 患門穴, 四花穴, 騎竹馬灸法의 세 가지이다. 이 가운데 患門穴의 적용증 설명이 『醫學入門』의 내용과 일치한다.<sup>15)</sup>

한편, 『鍼灸經驗方』 '傷寒及瘟疫'에 나오는 치법 가운데 『醫學入門』의 雜病穴法과 유사한 구절이 있다. 독특한 내용이기 때문에 『醫學入門』에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허임은 아래와 같이 在表, 在裏에 관한 부분을 많이 수정하였다.

#### ◎ 『鍼灸經驗方』 傷寒及瘟疫

一日 治風府穴 二日 治三間穴 三日 治中渚臨泣 四日 治少商隱白 五日 治神門太谿 六日 治靈道、中封、間使穴，在表，主腑，陽谷、支溝、陽谿、陽輔；在裏，主臟，商丘、復溜、經渠、靈道、間使。

#### ◎ 『醫學入門』 雜病穴法

傷寒一日太陽風府，二日陽明之榮，三日少陽之俞，四日太陰之井，五日少陰之俞，六日厥陰之經。

在表刺三陽經穴，在裏則刺三陰經穴，六日過經未汗刺期門，三里，古法也。有陰證灸關元穴，爲妙。

傷寒流注의 치법도 『醫學入門』의 雜病穴法의 내용을 기본으로 변형을 가하였다. 傷寒流注에 공히 太衝, 內庭을 사용하며, 이것이 退寒熱에도 효과적이라는 견해에는 동의했으나 手, 足, 背, 腹의 구분에 있어서 『鍼灸經驗方』은 太衝과 內庭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각각 手三里, 間使, 下三里를 배합하는 방식을 택한데 반해 『醫學入門』은 手三里, 太衝, 行間, 足三里를 선택하고 있다. 『鍼灸經驗方』에서 문장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行間을 間使로 고쳐 넣었다.

#### ◎ 『鍼灸經驗方』 傷寒及瘟疫

傷寒流注 太沖 · 內庭穴鍼，此二穴總治，能退寒熱。在手，太沖 · 內庭 · 手三里并鍼；在足，太沖 · 內庭并鍼；在背，太沖 · 內庭 · 間使并鍼；在腹，太沖 · 內庭 · 下三里并鍼。

#### ◎ 『醫學入門』 雜病穴法

傷寒流注分手足，太衝內庭可浮沈。

15) 박문현, 허임, 「『鍼灸經驗方』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2:12-69

二穴總治流注，又能退寒熱。  
在手。針手三里，在足太衝。在背行間，在腹足三里。

『鍼灸經驗方』에도 『醫學入門』에 치법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인용된 내용이 양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醫學入門』의 특징인 子午八法나 침구가부와는 거리가 있는 내용들이다. 구체적인 치법에 있어서도 許任의 견해에 따라 변형이 이루어져 있었다.

### III.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醫學入門』 침구학의 특징을 살펴보고, 조선 침구학이 『醫學入門』 침구학 내용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살펴보았다. 조선 의가들은 『醫學入門』의 經穴 고증과 奇穴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는 정작 이천이 생각했던 침구학 내용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명청대 중국인들은 『醫學入門』이 당대의 침구학을 대표하는 서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醫學入門』이 명청대 주류 침구학의 전통을 잘 드러낸 의서라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다. 또 조선에서 가장 영향력 있었던 명대 종합의서 가운데 침구학적 내용을 이처럼 풍부하게싣고 있는 서적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럼에도 『醫學入門』의 침구학이 조선 사회에 미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뿐이다. 『鍼經要訣』은 經穴, 煉濟法의 내용을 실었으나 그 외의 치법의 내용은 적지 않고 있다. 『東醫寶鑑』 또한 五俞穴과 奇經八穴 및 奇穴의 임상적인 유용성은 충분히 공감하였으나 子午八法이나 散鍼 등 정작 요점적인 내용들은 부정하였다. 『鍼灸經驗方』 역시 몇몇 치법들을 인용했으나 자신의 생각에 맞게 변형시켜 적어 놓았다.

『醫學入門』의 저자 李挺은 子午流注의 중요성을 역설했지만, 정작 조선의 의가들은 『醫學入門』의 經穴 고증과 奇穴에 관한 내용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인 셈이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 침구학이 『醫學入門』이 주장했던 子午八法의 논리에 찬동할 수 없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조선의 의가들은 雜病穴法이라는 완성도 높은 침구가부의 내용 역시 충분히 만족할 수 없었다. 이는 조선의 의가들이 명청대 침구학의 학술 경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독자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 IV. 참고문헌

1. 김기욱 외, 『강좌 중국의학사』, 대성의학사, 2006.
2. 김종권, 「동의보감의 문현적 연구」, 『서지학연구』 1995;11:207–243.
3. 안상우, 『鍼經要訣』, 고의서산책240, 민족의학신문, 2005; 507.
4. 오준호, 「『동의보감』 침구법의 의사학적 연구」, 경희대학석사학위논문, 2006.
5. 王東紅, 郝保华, 「子午流注形成年代探讨」, 『針刺研究』 1998;3.
6. 李嘉, 「徐恒澤」, 『南京中醫藥大學學報』, 1997;13(6): 359–360.
7. 李磊, 「자오유주납갑법적연구화응용」, 上海:상해과학기술출판사, 2000.
8. 이제동, 김남일, 『중국 침뜸의학의 역사』, 서울:집문당, 1997.
9. 차웅석, 김남일, 「醫學入門의 편제분석」, 『경희한의대 논문집』, 1999;22(1).
10. 肖少卿 외, 『中國鍼灸學史』, 寧夏人民出版社, 384–5.
11. 황용상, 『중국침구학술사대강』, 북경:화하출판사, 2001.
12. 황용상, 『침구명저집성』, 북경:화하출판사, 1997.